

## 實在解釋과 哲學의 立場

「現代의 思惟와 人間理念」의 續稿(一)

金基錫

「人間의 理性은 形而上學을 拒否하지 못한다」이 조그만 敍述속에서 우리들은 칸트哲學의 形而上學的, 따라서 存在論的 性格을 외운다. 칸트哲學은 흔히 存在의 認識이 아니라, 存在의 認識의 認識을 그 課題로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칸트의 思索은 그 高潔한 生涯를 通하여 依然히 存在를 探求, 追求한것이 아닐지.

哲學은 存在를 思惟한다. 이때 哲學은 存在를 그 자신의 課題로 한다. 哲學은 思惟를 思惟한다. 그런데 이 思惟는 언제나 存在에 대한 思惟가 된다. 이때 哲學은 思惟를 存在에 대한 思惟를 그 자신의 課題로 한다.

現代의 哲學이 몹시 存在論的 傾向을 띠인다고 해서 哲學이 現代에 이르러 全然 어떤 새로운 流域에 흘러드러선 것은 아니다. 存在論은 본래 哲學의 가장 오래인 源流이면서 그 자신 한개 소중한 領野를 形成한다. 「아테나이」期 乃至 그 前期의 哲學에 있어서 우리들은 오늘의 「하르트만」이나 「하이텍겔」에 依하여 代表되는 存在學의 빛나는 根源을 發見한다.

칸트哲學조차를 한 개의 實在論도는 形而上學으로 規定할때 哲學은 希臘과 獨逸의 두 流域을 通하여 圓통 넓은 意味의 存在論에 싸이는 것이 아닐까.

存在의 世界에 대한 根源的 鮮明. 이것은 진실로 哲學및 哲學하는 이들에게 나리여지는 한개 久遠한 課題가 된다. 그런데 이 存在란 무엇인가. 이 存在의 世界란 무엇인가. 우리들은 人間의 思惟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久遠한 課題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동안 몇 개의 存在論또는 存在觀을 길러 나아왔음을 본다.

觀念論은 存在의 世界를 精神이란것이 있어서 說明한다. 自然은 기실 純粹한 客觀的 世界가 아니고, 人間의 理性에 依하여 定立表現되는 어느 意味의 主觀的 世界에 지나니 안는다. 이리하여 自然이나 物質은 도리어 意識의 所産

인 幻滅의 世界요. 그것을 構成하는 思惟또는 理性이 眞實한 意味의 實在 및 現實이된다고한다. 이 이른바 理性이 人間을 다른 存在로부터 구별하는 徵表 인데서 觀念論은 自然에대한 人間의 優位를 高調하게되고 나아가 人間의 生活에 있어서도 感性行動에 대한 悟性, 諦念의 優越을 主張하기에 이른다.

唯物論은 存在의 世界를 物質이란것에 있어서 解說한다. 自然이 아모리 理性에 依하여 把握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人間의 「意識을 떠나 儼然하게 그 자신의 實在性을 主張하는 客觀의 世界이니, 人間의 主觀은 단순히 이 客觀的 實在를 模寫反映하는데 지나지 않다. 이리하여

理性이나 思惟는 본대 現實人間의 感性和 行動을 媒介로 하고 構成되는것이고, 이 現實人間은 그 基底에 物質의 世界, 自然의 世界를 가지고 있다고한다. 人間의 理性이 칸트의 이른바 久遠한 溝渠를 넘어서서 實在의 世界를 그 具體性에 있어서 理解하기에 이르는 것은 본대 物質이 物質그 자신을 또는 自然이 자연 그 자신을 映寫, 表現하는것같은 意味를 가지는 때문이라고한다.

觀念論은 存在를 그 存在의 側面에서 본 나머지 어떤 久遠한 世界에 대한 憧憬에 잠기고 唯物論은 存在를 그 生成의 側面에서 보는데 붓잡혀 모두를

**流動** 과 轉變에 있어서 把握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現實的인 存在, 또 그 世界는 단순한 存在에 그쳐도 안되고 단순한 運動에 떠러지도 안된다. 存在는 언제나 運動的인 存在가 되어야하고 運動은 언제나 存在의 運動이 되어야한다. 時間을모르는 久遠한 存在가 있고, 主體를 여힌 抽象的 運動이 잇는가.

여기에서 우리들은 存在의 形而上學으로서의 觀念論, 生成의 形而上學으로서의 唯物論에서 헤어져 實在의 世界의 現實構造를 생각하는 한 개의 高次의 立場에 옮기여 올 것이 아닐까.

哲學은 본대 實在에 대한 根源的 思惟를 그 자신의 久遠한 課題로 한다. 그런데 哲學이 그 發祥地인 希臘에 있어서 자기를

**實在**의 學으로 自覺한것은 결단코 哲學의 그릇된 出發은 아니었다. 우리들은 人間의 自己反省과 함께 發見되잇을 이 人間의 思惟가 특히 자기를 哲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진실로 만흔 迂廻와 屈折을거쳐 오늘에 이른것을 생각해본다. 아야 도대체 이 人間이 무엇이길래 또 이 哲學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오랜 동안을 저만흔 사람들이 가난과 싸호고 時代와 싸호고 하면서 人間永遠의 遺産인 이 「理論的 精神」을 擁護하여 내려왔을까. 우리들은 여기에서 哲學에 대한 人間의 久遠한 愛慕와 志向을 외온다.